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

“수익성 악화로 대출문턱 ↑… 서민들, 사금융 내몰릴 듯”

2018년 이후 3년만에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20%

업계 “카드사 수익 악화 불가피 당국 예측보다 대출 부작용 클 것”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0%에서 20.0%로 낮추기로 발표하면서 카드업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질 경우 서민층에서 주로 이용하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초 연 27.9%에서 24.0%로 한 차례 인하한 후 3년 만에 다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지난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서민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을 꼽는다.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지난 3월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87%에 해당하는 208만명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최고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한 보완조치도 병행한

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이 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출절벽 등의 부작용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8일 “대출 감소 추정치로 내세운 설문자료(지난 2월 설문 수치) 이후로 코로나19 장기화, 대부업체 신규 대출 중단 등의 여러 변수로 대출 시장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당국의 예측으로 내세운 효과보다 대출절벽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20% 초과분 만큼 수익성이 악화해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지난 9월 ‘카드사별 카드론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에 따르면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회원은 삼성카드 23.91%,

현대카드 11.0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각각 4.04%, 4.28%, 4.95%에 이르며 해당분 만큼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에 대한 금리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카드업계 역시 연금리 20% 초과 분에 대한 소급적용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과 달리 카드업계는 소급적용 약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급 적용 압박이 뒤따른다”며 “지난 2018년 인하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 방안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선제대응 나선 저축銀, 신규대출·고금리 상품 축소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 가능성 ↑ 단계적으로 수익성 악화 예방 “이미 기존보다 대출 깎간해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저축은행이 신규대출 창구를 축소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리 인하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지만 지금부터 신규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시행 이후의 수익성 타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

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24%에서 20%로 4%포인트가 인하된다. 고소득, 고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중은행의 경우 큰 타격은 없지만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의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을 판매해 온 저축은행은 수익성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장기화된 만큼 저축은행도 저신용 차주를 선제적으로 줄이고

이자 20%가 넘는 대출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다.

지난달 기준 자산 순위 상위 저축은행 신용대출 판매자료를 살펴보면 연 20%가 넘는 대출 상품 비중은 SBI저축은행이 22.71%로 두달 전인 7월 말(25.46%) 보다 2.75%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22.95%에서 20.97%, 웰컴저축은행이 28.7%에서 24.95%로 각각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해 대출 자체는 이미 기존보다 깎간해지고 있다”며 “향후 리스크를 충분히 계산해 고금리 대출을 줄여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대출 축소가 이어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신규대출을 거절당하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자체에서도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판매가 중단되면서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최근 주요 수익원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중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중금리대출 금리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어 기존보다 이자 수익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온 점을 감안, 향후 중금리대출 금리가 얼마나 인하될 지도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개인투자자 IPO 공모 기회 확대… 배정비율 최대 30%

금융위원회 하이일드 배정물량 변경

앞으로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최대 5%를 배정하고,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공모주 배정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청약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IPO 공모주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 3월 422대 1에서 7월 781대 1, 8월 1559대 1로 치열해졌다. 경쟁률이 1000대 1일 경우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을 납입할 경우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청약자의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김희주 기자

배정한다. 현행상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한다.

앞으로 주관회사는 배정 물량중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물량에 대해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이지만, 지난 2017~2019년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으로 청약 미달이다. 우리사주조

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고,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배정한다.

하이일드 우선배정물량(10%)을 5%로 감축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기업공개시 여러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IPO주식은 상장 이후 가격등락이 심한만큼 청약광고시 투자 위험도 고지하도록 한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11월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편의성 개선

설문조사 등 고객 의견 적극 반영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VOC(고객의 소리), 설문조사, 앱 리뷰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선 기능은 ▲수취인 연락처 기능 신설 ▲신분증 촬영 인식 기능 개선 ▲WON뱅킹 내 상품물 개편 등이다.

수취인 연락처 이체 기능은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수취인 연락처만 입력하면 송금이 가능하다. 수취인에게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급된다.

신분증 촬영인식 개선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 인식 정확도와 판독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WON뱅킹 내 상품물을 개선해 주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에 대한 상품



모델이 우리WON뱅킹 편의성 향상 내용을 알리고 있다. /우리은행

군별 추천기능을 신설했다. 연말정산 연관상품 등 테마가 있는 상품 추천 기능도 추가했으며,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물의 화면도 전면 개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우리WON뱅킹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우리WON뱅킹의 고도화를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